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문화유산 콘텐츠 공모전 작품소개서(스토리텔링)

응모자명	강성훈		
작품명	송례문 숨은 키(1미터60센티)의 비밀		
한 줄 이야기	지난 7월 찾은 송례문 숨은 키에 얹힌 스토리텔링		
소재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번지(송례문)		
주제	격조 높은 한국인의 얼과 정신은 세세손손 이어져 내려 감		
기획의도	외국인에게 '송례문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 매김 되어 있는지' 알림		
등장인물			
등장인물명 1	나 (박재현)		
남자 중학생, 부모님이 맞벌이라 학원에서 보내는 평범한 학생. 주인공			
등장인물명 2	어르신		
무섭게 보이지만 한국인 정신을 상징하는 송례문 경비원, 메시지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			
등장인물명 3	왕(태조 이성계)		
큰 뜻을 품고 송례문을 건립한 조선의 왕, 이성계			
줄거리			
나는 송례문 근처에 있는 학원을 다닌다. 학원을 가는 길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나를 응시하는 것을 느끼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날씨도 덥고 피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 나를 송례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을 탈출해 보니 1392년 조선시대였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화살에 맞아 죽고, 우여곡절 끝에 태조를 만난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문화유산 목록			
번호	문화유산명	소재지	내용
1	송례문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작 품 본 문

아침이다. 일찍 일어나려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나는 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핀 후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와 아빠는 맞벌이 부부라 아침 일찍 일터로 간다. 외아들인 나도 덩달아 아침이 늘 분주하다.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나는 서울 회현역 근처에 있는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아버지 친구가 하는 학원이다. 지하철을 타고 거기까지 간다. 집에서 학원까지 40분 정도 걸린다.

오늘 날씨가 참 쾌심하다. 먹구름이 많이 끼고 습하다. 나는 교재와 핸드폰을 챙겨 나와 집 앞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역은 낮인데도 사람으로 붐볐다. 근데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에 의해 자꾸 쫓기는 기분일까? 지하철을 탔는데도 그런 느낌은 줄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옷차림이 평범하게 보이는 어르신이었다. 키는 1미터 60 정도였다. 죽 한 그릇도 먹지 못한 것처럼 몸이 야위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 어르신은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눈길이 마주쳤다. 나는 그의 강한 눈빛에 놀라 얼른 눈을 감아 버렸다.

“다음 역은 회현역입니다. This station is Hoe-Hyn, Hoe-Hyn.”

무서운 마음이 들어 서둘러서 내렸다. 그런데 아뿔싸 어르신도 나를 따라 오는 게 아닌가. 숨이 막힐 정도로 뛰고 또 뛰었다. 뒤를 돌아보니 강한 눈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돌린 후 학원으로 들어갔다. 몸은 학원에 있지만 공부는 잘 되지 않았다.

“자, 그럼 Activities Book 164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야. 잊지 말고 해오고. 오늘은 여기까지다.”

수업이 끝났다. 남대문 시장에서 늦은 점심을 사먹은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5시인데도 밖은 아주 캄캄했다. 검은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삼켰다.

‘우르릉! 쿵!’

천둥이 쳤다. 나는 엄마가 빨리 퇴근하기를 기다리다 잠이 들고 말았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전화가 있다. 학원에서 만난 규식이다.

“여보세요?”

“재현아.”

“왜?”

“오늘 우리 학원가지 말고 퇴자.”

“그럼 뭐 할 건데?”

“근처 PC방에 가서 놀지 뭐. 애들 몇 명도 불렀어. 함께 갈꺼지?”

“어”

“늦지 마. 회현역 2번 출구! 알았지.”

“응.”

나는 규식이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 규식이와 친구 4명이 더 있었다. 우리는 뭉친 후 바로 PC방으로 갔다. PC방에는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게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는 2시간 이상 화장실 가는 것을 참았다. 나는 2시간이 지나 혼자서 화장실에 갔다. 친구들은 계속 게임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음.. 나 화장실 다녀올게....”

“똥.... 어.”

일을 다 본 후 손을 씻고 나가려 돌아서자, 지하철에서 만난 어르신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나에게 말했다.

“다 봤니?”

“네?”

“너 말이다!”

“뭐가요?”

갑자기 이상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몸이 어지러워졌다. 맥없이 나는 쓰러졌다.

“잔말 말고 따라 오너라”.

“어.....”

“여기가 어디지?”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깊은 밤이다. 주위를 살펴보니 내 앞에 커다란 무언가가 우뚝 서 있었다. 밑은 가운데 구멍을 놓고 나머지는 돌로 쌓고, 위는 2층으로 된 다락집이 있다. 지붕에 용머리와 잡상이 놓여져 있었다. 학원가는 길에 보았던 승례문이다.

나는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에 출구를 찾으려 했다. 출구는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열렸 있었다. 그 쪽으로 가려면 문을 지나가야한다. 내가 문으로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문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내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이다.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말과 소, 그리고 TV 사극에서나 봤던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빌딩은 보이질 않고, 초가집들이 거리 옆에 즐비해 있었다.

뒤에서 커다란 손이 나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나를 납치한(?) 그 노인이었다.

“자네가 걸어 나온 저 문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통로이지. 지금은 1398년이 라네. 조선시대지.”

“네? 뭐라고요? 지난 번 엄마와 아빠랑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네 가족이 낮에 와서 그랬겠지. 문을 통해 시간여행이 가능한 것은 밤 12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야.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

“현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저 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

“어쩌다 저 문을 통해 시간여행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절 데려온 거죠?”

“왜냐면.... 크 헉!”

어디선가 갑자기 날라 온 화살이 어르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앗! 할아버지!!!”

병사들이 나를 포위하고서는 칼과 창을 겨누었다. 병사를 지휘하는 자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름은 무엇이고, 이 곳에는 무슨 일이냐?”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 옷차림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뭐라고 그 가 나긴 시간의 차이를 대답해야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질 않느냐? 여봐라 이 놈을 옥에 가둬라”

“잠깐!”

그 때 마차를 탄 누군가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거기에 있던 모든 병사와 백성들이 칼과 창을 접고 그를 향해 절을 하였다. 나는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아 멍뚱히 서있기만 하였다.

“무엄하도다! 감히 폐하께 무례를 끼치다니! 저 자를 참형에 처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됐다. 이 자와 단 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 물러나보도록 해라.”

“예.”

책이나 드라마로만 본 왕의 권력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모든 병사와 백성들이 조용히 물러났다. 이제 왕과 나만 남았다.

“난 자네가 숭례문을 통하여 미래에서 온 것을 본디 알고 있노라.”

난 그저 놀랐다.

“일단 저 위로 올라가자.”

그와 난 숭례문의 다락집으로 올라갔다. 다락집은 내가 과거로 오기 전보다 훨씬 깨끗했다.

“그대 이름이 무엇 인고.”

“박재현요.”

“흠... 자네, 숭례문을 아는가?”

“네, 태조 이성계가 지었다고 들었어요.”

“짐이 바로 그다.”

“네? 그러세요?”

“내가 이 문을 지은 지 얼마 안됐지만 이 문은 뭔가 불안해. 후손들이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예를 숭상하고 번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노라.”

“걱정하지마세요. 그 문은 지금도 잘 있는데요.”

“흠....”

왕은 깊은 생각에 잠시 빠지다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이 문을 포함해 나머지 사대문을 왜 지었는지 너는 아느냐?”

“아뇨.”

“외부 침입이 자주 있어 이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위해 지었노라.”

“아하~!”

“지금 그대가 사는 시대에 사대문은 잘 있는가?”

“아, 지금은 홍인지문과 숭례문만 남아 있어요.”

“.....”

갑자기 왕은 말을 끊었다. 어두운 표정을 지은 뒤 왕은 옷소매에서 작은 종이와 책과 그리고 쓸 것을 나에게 건넸다.

“숭례문은 꼭 지키고 싶다! 이 쪽지는 숭례문 구조에 대해 자세히 적어 놓은 것이다. 이 것을 참고해도 혹시 숭례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비토록 하여라.”

쪽지 앞면을 펴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승례문은 중층 우진각 지붕의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문은 강화석 홍예문을 중앙에 둔 거대한 기단 위에 층루로, 기둥은 굽직한 둥근 기둥이며 기둥머리에는 키가 큰 창방을 걸고 그 위에 큰 치수의 평방 돌린 다포식<多包式>의 공포를 배치하였는데 공포수법은 하층은 내외 2출목이고 상층은 외 3출목, 내 2출목이다. 공포 형태는 전형적인 초기형식을 따르지만 쇄서의 형태가 다소 위로 호형을 이룬 곡선이다. 천장에는 가구된 것이 없으며 지붕은 위아래층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다. 석축 윗면에는 주위에 높이 1.17m의 벽돌로 된 여장을 돌려 동서 양쪽에 협문을 열었고, 건물의 외주바닥에는 판석(板石)을 깔았다. 건물 내부의 아래층 바닥은 홍예 윗면인 중앙간(中央間)만을 우물마루로 하고 나머지는 흙바닥이다. 지붕은 위·아래층이 모두 겹처마로 사래 끝에는 토수(吐首)를 달고 추너마루에는 잡상(雜像)과 용머리[龍頭], 그리고 용마루 양가에는 독수리머리를 올렸다. 이 건물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성문이기 때문에 천장을 가설할 필요가 없어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글 옆에 있는 그림 몇 개를 보고 대강 이해하려고 했다.

“승례문을 건축한 뜻과 의미가 후세들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노라. 이 공책과 쓸 것을 가지고 가서 미래의 승례문에 대해 자세히 그려 줄 수 없는가?”

“네? 네..”

학원숙제와 달리 나는 왕의 부탁을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돌아가려고 문 쪽으로 가는 중에 화살에 맞아 쓰러진 노인이 생각났다.

“저기....”

“왜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안내하다 화살을 맞고 죽은 그 분을 아세요?”

“나도 잘 모르겠구나. 어서 가거라. 곧 해가 뜬다. 늦으면 돌아가짐 못해!”

“네.”

나는 문을 향해 뛰었다. 빛이 다시 나타났다. 눈이 부셨다. 문을 건너자 자동차와 높은 빌딩이 보인다.

규식이가 내게 전화했다. 규식이의 전화다.

“여보세요?”

“야, 재현아, 너 도대체 어디야?”

“나?..”

“어디야? 우리 너를 찾다가 그냥 집에 와 버렸어.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맞다. 나는 친구들과 PC방에서 학원을 도망치고 놀다 이쪽으로 온 것 이었다. 시간은 아직 내가 과거로 가기 전 시간이랑 같았다.

“야!”

“어 왜?”

“어디냐고?”

“나 PC방 근처에서 그냥 앉아있어.”

“팝~ 혼자 뭐하나? 알았어. 암튼 내일 학원에서 봐!”

“응~!”

전화를 끊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 앞 역까지 갔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퇴근을 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서 송례문 역사를 검색하고, 왕이 나에게 건넨 공책에 메모를 해 나갔다.

조선시대 서울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원래 이름은 송례문이며,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이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리 때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부분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송례문’ 이라고 쓴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인터넷을 서핑하다 방금 전에 뜬 인터넷 뉴스속보가 눈에 확 들어왔다.

‘송례문 경비를 맡았던 어르신 실종!’

바로 그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집 앞에서 만나 퇴근을 한 것이다. 난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그 노인 실종이 속보로 뜰 만큼 큰 뉴스거리인가?’

날이 밝았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 여유 있게 아침식사를 함께 했다. 나는 평상시처럼 학원에 갔다. 주말오후 보충수업을 받기 위해서다. 학원교재와 노트와 펜을 챙겨 집을 나섰다. 어젯밤 꿈 이상한 꿈 때문에 수업 중에도 송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보충수업을 마치고 규식이와 함께 시내를 돌아 다녔다. 저녁 9시 쯤 되었을까? 가전제품 대리점 TV에서 속보가 떴다.

‘송례문 화재 발생, 진화 중’

나는 큰 주먹으로 한 데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꿈속에서 왕이 내게 준 쪽지가 생각났다. 그 쪽지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데도 없다. 어디 있을까? 꿈을 꾸고도 송례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나는 이유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세게 닫고 거칠게 침대 위에 누었다.

송례문이 모두 타 버렸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다. 송례문은 옛 모양 그대로 복원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지난 7월 초 ‘송례문에 숨은 키를 찾았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그 키가 1미터 60센티이다. 실종된 그 어르신의 키도 1미터 60센티 정도였다. 그 어르신은 꿈속에서 나를 과거로 안내한 분이다. 실종된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다. 송례문을 건축하고 수백 년 동안 가꾸고 드나들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지금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